

우나무노의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에 나타난 소설론과 인간의 존재적 의미*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민현(2020), 우나무노의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에 나타난 소설론과 인간의 존재적 의미,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1), 1-21.

초록 우나무노의 소설은 그의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로서 보통 이해된다. 그런데 그의 소설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전망의 변화에 따라 또는 소설 장르에 대한 성찰에 따라 진화하였기에 일괄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랑과 교육』(1902)이 우나무노의 첫 소설인 『전쟁 속의 평화』에 나타난 19세기적 사실주의를 극복하는 이정표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안개』(1914)는 그가 지향하는 소설에 대한 사유를 본격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한편,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1920)은 그의 대표작 『안개』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인간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 좀 더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안개』에서 우나무노는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만남을 통해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존재 문제를 떠올렸다. 반면에 그는 ‘삶 자체로서의 소설론’에 기반을 둔 이 모범소설에서는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실재하는 인물인가 허구적인 존재인가에서 찾지 않고 무엇인가 되려는 또는 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전환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우나무노의 소설론에서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그가 제기했던 대표적인 논점 중 하나인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이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핵심어 우나무노,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 내면적 현실, 존재적 의미, 모범

* 이 결과물은 2019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우나무노의 소설은 그의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로서 보통 이해된다. 그런데 그의 소설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전망의 변화에 따라 또는 소설 장르에 대한 성찰에 따라 진화하였기에 일괄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랑과 교육 *Amor y pedagogía*』(1902)이 우나무노의 첫 소설인 『전쟁 속의 평화 *Paz en la guerra*』(1897)에 나타난 19세기적 사실주의를 극복하는 이정표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안개 *Niebla*』(1914)는 그가 지향하는 소설에 대한 사유를 본격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아벨 산체스 *Abel Sánchez*』(1917)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다. 우나무노 소설의 이러한 전개에서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 *Tres novelas ejemplares y un prólogo*』(1920)은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할 때 세 편의 단편들이 불륜을 소재로 하거나 심리적 장애를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는 통속 소설의 형식을 띠었다는 점이다. 그의 이전 작품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했다면, 애정 사건이나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에 기반한 이 작품은 우나무노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낯섬을 넘어 관심을 좀 더 기울이다 보면 이 작품에 우나무노의 소설론 전개에서 새로운 전망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먼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된 세 편의 단편소설들을 아울러서 ‘모범’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얽힌 이야기들에 우나무노는 왜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불어 작품의 제목에 ‘서문’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책의 앞부분에 하나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서문을 굳이 제목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점 역시 더해진다. 그러한 질문들은 우나무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안개』에서 절정을 이룬 자신의 소설 미학에 또 다른 전망을 부가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서문과 모범소설들에 대한 면밀한 독서는 이러한 점이 우나무노가 이전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존재 문제를 사유했음을 떠올리게 한다. 『안개』에

서 우나무노는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만남을 통해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존재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에 그는 ‘삶 자체로서의 소설론’에 기반을 둔 이 모범소설에서는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실재하는 인물인가 허구적인 존재인가에서 찾지 않고 무엇인가 되려는 또는 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전환하여 사유하였다. 우나무노가 제기한 인간의 존재 문제를 다룰 때 그의 작품 간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기존의 비평에서는 별로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나무노의 소설론에서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그가 제기했던 대표적인 논점 중 하나인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이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의 제목에 보이는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II. 우나무노 소설론의 전개와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

1. 19세기적 사실주의에서 소설의 개혁으로

우나무노는 사상을 표현할 때 소설 장르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소설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설이 갖는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만들어내었다. 『안개』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소설론 ‘니볼라(nivola)’를 비롯하여 ‘난생(卵生)적 방법(método ovíparo)’과 ‘태생(胎生)적 방법(método vivíparo)’, ‘글 가는 대로(A lo que salga)’ 등은 그의 소설에 대한 사유를 엿보게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그의 소설론은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사벨 그리아도 미겔은 우나무노의 소설은 형식과 주제 면에서 3단계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소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나누었던 축이 된 작품은 『사랑과 교육』(1902)이다. 그 전의 작품인 『전쟁 속의 평화』(1897)는 완전히 사실주의 미학으로 되었으며, 이후의 작품들인 『안개』(1913)에서 『착한 성인 마누엘 San

Manuel Bueno, Mártir (1930)까지의 긴 기간에는 ‘인간의 행동과 열정이 소설적으로 진화’되어 나타난다(Criado Miguel 1986, 13).

『전쟁 속의 평화』가 카를로스파 전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19세기적 사실주의 방식으로 쓰였다면, 『사랑과 교육』은 이전의 사실주의 경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설 미학에 대한 우나무노의 관심이 투영된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우나무노는 자신의 소설을 『전쟁 속의 평화』와 그 이후의 소설로 구분하며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나의 문학적 여정을 좇으면서 나의 첫 번째 소설인 『전쟁 속의 평화』를 주목했던 사람은 내가 그 이후의 소설들에서 경치 묘사를 하고 시간적·지역적 색깔을 나타내면서 작품을 어떤 특정 시대와 장소에 위치시키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과 교육』, 『안개』, 『아벨 산체스』, 『세 개의 모범 소설과 하나의 서문』, 『뿔라 아주머니』 그 어느 것에도 경치뿐만 아니라 지리적이고 연대기적인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최대로 밀도 높은 소설을 만들어 가능한 최대한의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Unamuno 2015, 27).

실제로 우나무노(1992, 52)는 『사랑과 교육』에서 “사실주의가 포착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현실, 진정하고 영원한 현실을 내적으로 침투하여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감지하는 극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며 외부 현실에 기반을 둔 문학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한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실증주의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하여 천재를 만들려는 작품 속 주인공 돈 아비토 까라스칼(don Avito Carrascal)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는 모습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바탕으로 그려내면서 결국 19세기 사실주의와 실증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이후 우나무노는 수필 『글 가는 대로』(1904)에서 자신의 소설 미학의 변화를 ‘난생적 방식’과 ‘태생적 방식’이라는 두 용어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난생적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는 작가들은 자료를 모으고 메모를 하면서 이를 글 쓰는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개요를 만든 후 덧붙이고 다듬어가며 마치 알과 같은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역시 카를로스파 전쟁이라

는 역사적 사실을 다룬 『전쟁 속의 평화』를 집필할 때 이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Unamuno 2019, 2). 반면에, 태생적 방식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메모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린다. 어떤 소설을 쓰려는 목표가 셋을 때,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해간다. 어느 순간 출산의 진정한 고통, 오랫동안 내부에 있었던 것을 밖으로 쏟아낼 절박한 필요성을 느낄 때,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다시 다듬지 않고 마지막 행까지 써 내려간다(Unamuno 2019, 3).

우나무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소설은 난생의 방식으로 썼지만, 그 이후 어느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썼다고 했는데(Unamuno 2019, 3), 그 차이점은 소설 속 내용을 작가가 엄격히 통제하느냐 아니면 어떤 통제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느냐이다. 그가 「글 가는 대로」에서 제시한 태생의 방식은 『안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작용한다. 우나무노는 이 작품에서 스페인어로 소설을 의미하는 ‘노벨라’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신조어 ‘니볼라’를 만들고, 작가로 등장하는 등장인물 빅토르의 입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소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였다. 빅토르는 먼저 자신의 소설은 줄거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태생의 방식’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는다.

최근 들어서 어느 날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중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었어. 내부에서 뭔가 근질거리고 환상이 꿈틀거리면서 말이야. 그래서 난 혼잣말로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중얼거렸지. 그러나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라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모른 채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종이 위에 옮기려고 해. 나는 앉아서 종이 몇 장을 꺼내어 줄거리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도 모른 채 내게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어(Unamuno 1984a, 199).

정해진 줄거리 없이 진행되는 소설은 빅토르에 의해서 자기 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된 ‘대화로 된 소설’과 관련된다. 대화는 서술처럼 정해진 내용

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 채 진행되는 속성을 갖는다(조민현 2018, 121). 따라서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야기가 작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자체의 내적인 동력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며, 그때 작가는 이야기를 이끄는 전지적 시점을 잃게 된다. 아우구스또는 친구 빅토르의 소설론에서 이 점을 간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네 손으로 인물들을 이끌어간다고 믿으면서 시작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너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되지. 작가가 오히려 자신이 낳은 허구적 산물의 장난감이 되며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Unamuno 1984a, 200).

이렇게 이 작품은 즐거리의 부재, 대화적 역동성, 전지적 작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전통적인 사실주의 소설과 결별하는데, 이 이외에도 작가가 자신이 쓰고 있는 작품의 성격을 암시하는 ‘자기반영성’, ‘의식의 흐름’, ‘내면 독백’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안개』에는 우나무노의 소설 미학을 이루는 기본적인 열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적 개혁은 인간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많이 알려진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만남이라는 장치에서 비롯된다. 이 만남에서 두 인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작가가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등장인물은 자율성을 주장하며 스스로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항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가 우나무노와 등장인물의 관계는 또한 신과 인간 우나무노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등장인물이 작가 앞에서 느끼는 존재적 불안은 인간이 신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는 유한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우나무노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조민현 2018, 124).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우나무노는 『안개』에서 새로운 소설 미학을 정립함과 동시에 등장인물을 통해 인간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사유해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우나무노의 소설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20년에 나온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은 또 다른 면에서 이 장르와 인간의 존재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자신의 모범소설을 설명하려고 썼다는

‘서문’에서 기존에 논의된 소설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소설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였고, 『안개』에서 이미 문제시됐던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다른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2. ‘삶 자체로서의 소설’과 내면적 현실성

『안개』는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실재하는 인간과 허구적인 인물 간의 존재적 문제를 다루었다. 말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허구적인 인물인가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 반면에,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에서는 실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은 사실 『안개』에서도 일정 정도 내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곳에서 우나무노는 소설을 삶 자체처럼 간주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편으로는 실재하는 인물인 작가와 그가 창조한 허구적인 인물을 같은 차원의 공간에 위치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간의 만남을 통해 인간 우나무노 역시 자신을 창조한 신 앞에서는 허구적인 인물 아우구스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가정했다. 이렇게 우나무노는 허구적인 인물을 실제 현실의 인간 위치에 놓으며, 그들이 만드는 상황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Criado Miguel 1986, 49). 그러한 점은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에서 결국 실제 현실 속의 인간이나 작품 속 등장인물이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소설론으로의 진화를 이루게 했다. 존재하고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표출에는 삶과 뼈로 사람의 형상을 갖춘 실재하는 사람이나 노벨라적 혹은 니볼라적 허구에서 구현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지라는 것이다(Unamuno 1987, 12). 따라서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의 초점은 실재하는 인간이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를 문제 삼는 것에서 벗어나,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렇듯 실재하는 인물과 허구적인 인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소설을 유기체적인 삶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나무노는 형식 면에서 ‘대화로 된 소설’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대화를 통해 인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고 동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요소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플라린과 같은 19세기 사실주의 소설가들은 겉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인물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나무노는 겉모습이나 배경 묘사 없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주의 방식으로 아무리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할지라도 인간의 실제 모습은 포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실성은 내면성이다. 연극 무대의 배경화나 무대 장식, 복장, 풍경, 가구, 주석 등은 현실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Unamuno 1987, 13)는 말처럼, 겉모습만 두드러지게 묘사된 인물은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꼭두각시나 마네킹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사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작중인물은 항상 줄에 묶여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였다. 빼드로 선생이 거리나 소광장 혹은 카페에서 채집하여 수첩에 기록했던 문장을 재생하는 녹음기를 가슴속에 지닌 옷 입은 마네킹이었다(Unamuno 1987, 11).

그렇다면, 우나무노는 어떤 인물을 이와 상반되는 인물로 떠올렸을까? 이를 제시하기 위해 그는 먼저 올리버 웬들 홈스의 책 내용을 인용하며 한 인물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후안과 토마스가 대화할 때의 상황을 예로 드는데, 그때 후안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세 명의 후안

1. 실제 후안: 오직 그의 창조자에게만 알려진 후안
2. 후안이 상상한 이상적인 후안: 전혀 사실적이지 않고, 종종 후안과 전혀 다른 후안
3. 토마스가 상상한 후안: 실제 후안이나 후안이 상상한 후안도 아니고, 종종 둘과 너무도 다른 후안(Unamuno 1987, 12)

이렇게 우나무노는 한 인물이 존재적으로 여러 가능성에 놓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우나무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인가? 이를 위해 우나무노는 올리버 웬들 홈스의 이론을 보완하여, 그가 언급한 인간의 여

러 존재적 가능성 이외에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간의 존재적 의미와 관련하여 각각 두 개씩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두 가지 긍정적인 태도: 1) 무엇인가 되기를 원한다.
 2) 무엇인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두 가지 부정적인 태도: 1)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 무엇인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Unamuno 1987, 12).

이 분류는 내면에서 무엇인가 되기를 또는 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의지에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이 담긴 것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적 의미와 관련하여 우나무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그 의지는 내면적 현실에서 우러나온다.¹⁾

소설 속에서 고뇌하는 자들, 말하자면 투쟁하는 자들은 [...] 지극히 내면적인 현실성, 즉 독자가 인물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면적인 현실성으로 인해 사실적이며, 더할 나위 없이 사실적이다. 이런 종류의 내면적인 현실성은 인물 자신이 순전히 무엇인가 되려는 또는 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Unamuno 1987, 11).

결국,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은 실재하는 인간이든 허구적인 인물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적인 현실을 표출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결정되는 소설론을 제시한다. 진정한 현실이 인물의 내면에 있다면 삶 자체로서의 소설은 그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작품 속에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1) 내적인 현실을 탐색하려는 우나무노의 열망은 “『아벨 산체스』에서 나는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곳, 영혼의 깊은 곳을 파헤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들춰보고 싶지 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했다”(Unamuno 1993, 47)라는 말에서도 엿보인다.

III. 인간의 존재적 의미와 소설의 모범성

1. 인물 속에 나타난 존재하려는 의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나무노는 내면적인 현실의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 되려는 또는 되지 않으려는 ‘의지’의 여부에 따라 인간 존재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세 편의 모범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내면적 현실을 자신의 존재적 이유로 삼는 주인공들이 그러한 현실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외면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들 속에 있던 내적 열망이 그들의 존재적 의미를 구성하는 본원적인 요소임을 암시한다.

첫 번째 작품인 「두 엄마 *Dos madres*」에서 이러한 면을 추구하는 인물은 라겔이다.²⁾ 미망인이자 불임인 그녀는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엄마가 되려는 의지가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연인인 돈 후안을 베르따와 결혼시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의 엄마가 되려고 하며, 그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난 아이를 찾고 있었지. 그리고 난 당신에게서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갖고 싶어 죽을 지경인 아이를 당신이 내게 줄 거라고 믿었어. 지금 난 당신이 내게 아이를 주기를 원해(Unamuno 1987, 33).

한편, 어릴 때부터 돈 후안을 알던 베르따는 돈 후안을 라겔에게서 떼어내 온전히 자신의 남자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라겔이 어떻게 돈 후안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배워서 그를 완전히 자신의 남자로 만들려고 한다. 두 여자의 갈등과 충돌은 베르따가 임신하면서 표면화된다. 베르따는 아이가 있으므로 그가 완전히 자신의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돈 후안의 모든 재산을 사전에 자신의 명의로 한 라겔은 경제력을 매개로 베르따를 굴복시키고 아이의 엄마가 되는 데 성공한다.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같이 라겔로 짓

2) 이 작품은 성경의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라헬이 자신의 언니를 질투하여 남편인 야곱을 자신의 하녀에게 보내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다.

고 아이의 엄마가 된 라켈은 또 다른 의미의 모성 역시 구했다. 그것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돈 후안을 베르타에게 양도하면서 나타난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두 엄마에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연상 시킨다. 라켈은 이 판결에서 상대에게 아기를 주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였던 것처럼, 자신 역시 베르타에게 돈 후안을 양도함으로써 진정한 모성을 갖기를 원했다.

한 아기를 놓고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투는 두 엄마의 이야기를 알고 있겠지. 여기 아기가 있어. 케케묵은 돈 후안 말이야! 이 남자를 둘로 나눠서 가지고 싶진 않아. 그러려면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를 죽여야 하니까. 저 남자를 전부 가져가(Unamuno 1987, 45).

결국, 라켈을 존재하게 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모성에 대한 열망, 엄마가 되려는 의지였다. 그러기에 돈 후안은 자신이 그녀에게 모성을 가져다주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후안은 라켈에게 자신이 단지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모성을 향한 광포한 허기를 만족시키는 수단이었는가? 아니면 기이한 복수심, 다른 세계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는가?(Unamuno 1987, 44)

여기서 돈 후안이 말하는 라켈의 복수심은 그녀의 강박적인 모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성을 갖는 것을 여성의 근본적인 역할로 규정했다면, 그 사회에서 소외당한 불임의 여성이 느꼈을 감정을 의미한다(Martínez 1991, 109).

한편, 두 여자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방황하던 돈 후안은 마지막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다. 그리하여 그는 두 여자에게서 도망치면서 자신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듯 이 이야기는 각각의 인물들이 내면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처한 조건을 벗어나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두 번째 작품인 「마르케스 후작 *El marqués de Lumbria*」은 후작의 어머니가 되려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롬브리아 후작은 서로 성격이 다른 카롤리나와 루이사로 불리는 두 딸을 두었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는 언니 까롤리나가 햇빛을 싫어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면, 동생 루이사는 노래 부르고 난간에서 밖을 내다보고 화초 가꾸는 일을 좋아했다. 자유분방했던 루이사는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또 다른 명문가의 자제인 프리스판을 알게 되고 그의 구혼을 받기에 이른다. 문제는 프리스판이 루이사 약혼자의 자격으로 롬브리아 후작의 집에 들어오면서 발생한다. 그가 언니의 유혹을 받아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을 우려한 후작은 첫째 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낸 후 루이사와 프리스판을 결혼시켰다. 후작이 죽고 루이사도 아들을 낳은 후에 죽게 되자, 프리스판은 처형인 까롤리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후 그들은 빼드리포라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가 동생 루이사와 프리스판 사이에서 태어난 로드리긴과 싸우자 까롤리나는 그 아이가 자신과 프리스판 사이에 태어난 아이임을 밝히고 로드리긴을 기숙학교로 보내버린다.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가문을 이어받을 후작이라고 천명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이유였음을 프리스판에게 밝힌다.

결국, 당신을 손에 넣은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후작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 당신은 내 몸을 깨어나게 했고, 그것과 함께 언니로서의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Unamuno 1987, 63).

까롤리나의 이러한 모습은 후작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것과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장녀의 권한을 되찾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버지가 세워놓은 전통을 비판하며 그가 있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 번째 작품인 「완전한 남자 *Nada menos que todo un hombre*」는 레나다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홀리아가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이야기이다. 그녀를 집안의 보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딸을 잘 결혼시켜서 경제적인 어려움

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는 가운데, 그녀의 애인들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 뿐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을 위한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 그녀에게서 떠나버리고 만다. 이런 상황 앞에서 홀리아는 “이 사람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 사람도. 남자들은 나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단지 내 미모와 사랑에 빠지지. 날 얻으면 그들이 유명해지니까!” (Unamuno 1987, 72)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때, 멕시코에서 온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 알레한드로 고메스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그를 진짜 남자로 여기고 결혼하지만, 자신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한다.

그는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미모로 그를 빛내주기만을 바라는 걸까? 나는 그에게 무척 비싸고 희귀한 가구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진정으로 나와 사랑에 빠져 있을까? 곧 내 매력에 싫증을 내지 않을까?
 (Unamuno 1987, 77)

이렇듯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빛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만족스러운 말을 듣지 못한 그녀는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보르다비에야 백작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완전한 남자를 자처하는 알레한드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부인이 소설을 많이 읽어서 신경이 쇠약해졌다고 말하며 그녀를 시골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렇지만,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백작과의 관계를 이어가자 그녀를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한다. 정말로 미칠까 두려워한 홀리아가 나온 척을 하자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사랑을 고백한다. 그런데도, 홀리아는 재차 묻는다.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나요? 아니면 내가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나요?” (Unamuno 1987, 100)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진정한 사랑을 향한 그녀의 갈구는 계속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홀리아의 존재적 의미는 외적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데에 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

게 아름다운 대상으로만 비쳐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의 인물로 인식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편, 알레한드로는 홀리아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아내 홀리아를 자신의 존재 이상으로 사랑했던 내면의 감정을 표출한다. 그래서 홀리아가 당시는 누구인지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 바로 당신의 남자지. 당신이 그렇게 만든 남자!”(Unamuno 1987, 106)라고 말하며, 부인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고 함께 죽는다. 그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이전까지의 그와 다르다. 홀리아가 남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답을 듣고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한 문제는 소설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무시하였고, 상처받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백작과 연애를 할 때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모습에 내면적 진실이 들어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것에 강한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질투나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홀리아의 일탈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믿음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의 인물들을 통해서 본 인간의 존재적 의미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내면적 현실은 한 인간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간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된다. 「두 엄마」에서 라겔은 미망인인 데다 불임의 여성이지만 모성을 강하게 표출한다. “아, 아이를 낳지 못하다니! 아이를 낳지 못하다니! 차라리 애를 낳다가 죽기라도 했으면!”(Unamuno 1987, 23)이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그녀는 자신의 현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마가 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동생 약혼자와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은 「마르게스 후작」의 까롤리나는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지만, 그 틀을 깨고 가부장제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는 의지와 자신의 자식을 후작으로 만들려는 열망으로 움직인다. 「완전한 남자」의 홀리아와 알레한드로 역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믿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들이다. 특히 알레한드로는 실재하는 진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에 있

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백작이 불륜에 빠진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을뿐더러 믿을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Unamuno 1987, 99).

여기에서 우나무노가 말하는 “믿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다”(Unamuno 1987, 14)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할 때, 존재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가 세르반테스만큼이나 현실적이라고 했던 돈키호테는 이러한 전망에서 그 존재적 의미가 마련된다. “돈키호테의 삶에서 현실은 풍차가 아니라 거인이었다. 풍차는 현상학적이고 외면적인 것이며, 거인은 누멘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다. 꿈은 삶이고 현실이며 창조하는 것이다”(Unamuno 1987, 13-14).

반면에 무엇인가가 되려는 의지가 없는 인물들이 있다. 우나무노 이들을 ‘석양의 인물(personajes crepusculares)’이라고 부른다. “무엇인가가 되기를 또는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은 채 오직 끌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는 석양의 인물 [...] 그들은 내면적인 현실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Unamuno 1987, 15). 이러한 인물들로 먼저 돈 후안이 있다. 비록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엄마가 되려는 라겔에 의해서 베르따와 결혼하고 원치 않는 아버지가 된 의지 없는 인물로 제시되었다. 까롤리나와 루이사 사이에서 방황한 프리스판, 보르다비에야 백작 역시 자신들의 의지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인형극의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전락한 인물들이다.

우나무노는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존재하려는 의지에서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구하고 있다.

2. ‘삶과 현실의 모범’으로서의 소설

세르반테스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모범을 끄집어낼 수 없는 작품은 없다”(Cervantes 1984, 52)라는 말로 작품명을 ‘모범소설’이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한다. 우나무노는 이 말을 인용하고 이어서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이 갖는 도덕적·미학적 모범성에 대해 말한다. “세르반테스는 그의 소설에서 도덕적인 모범성이 아니라 오늘날 미학적이라고 칭하는 모범성을 추구했으며, 이를 통해 괴

로운 영혼이 실 수 있는 여흥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다”(Unamuno 1987, 10).

세르반테스가 이렇게 ‘모범’이라는 말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과 미학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담으려 했다면, 우나무노는 이 용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통속 소설의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모범’이 의미하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가 상정하는 ‘모범’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그의 기본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삶의 비극적 감정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1912)에서 인간 존재와 관련된 그의 고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존재는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하려는 불멸에 대한 열망을 갖는 반면에 이성 존재의 유한성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이렇게 불멸을 갈망하는 신앙과 그것이 불가능함을 일깨우는 이성 사이의 갈등이 ‘삶의 비극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범소설의 ‘모범’을 논할 수 있는 가능한 출발점은 이러한 비극적 감정에만 갇혀있지 않는 데 있다. 이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벗어나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Zlotescu Cioranu 1970, 955).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는 현 존재로서의 지속을 원한다고 말했던 스피노자식의 존재 의미를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인간이 자신의 내면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꿈꾸는 것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기에 『완전한 남자』에서 홀리아는 결말에 가서 죽지만, 죽음의 순간에 알레한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열망했던 꿈을 이룬 듯 찬란하게 빛난다. 이처럼 홀리아의 죽음은 인간의 의지가 유한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의미가 있게 되는 예를 보여준다(Zlotescu Cioranu 1970, 958).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이 발간된 바로 그 해에 우나무노는 시집 『벨라스케스의 그리스도 *El Cristo de Velázquez*』를 발표했다. 그곳에서 그는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벗어나 인간의 열망과 의지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간의 꿈인 그리스도

[…]

당신 역시 꿈을 꾸었는지요?
 당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었지요?
 어쩌면 당신의 삶은 우리처럼 꿈은 아니었는지요?
 [...]

 우리는 당신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빚어낸 꿈으로서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Unamuno 1984b, 29)

인간이 소망하고 꿈꿀 때 그리스도의 존재적 의미가 있듯이, 인간 역시 실제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꿈꾸는 삶, 바라는 현실을 좇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의 서문 끝부분에서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비록 소설 속의 번민하는 인물들이 이해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살아가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살아가리라는 것을 안다. 내가 살아가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 점을 확신한다”(Unamuno 1987, 18). 말하자면, 우나무노는 소설 속에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무엇인가 되려는 인물들이 들어있기에 그들이 존재적으로 현실성이 있음을 확신했으며, 그런 만큼 이 작품을 ‘삶과 현실의 모범’이 된다고 보고 모범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Unamuno 1987, 10).

IV. 결론

우나무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설 장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프란시스코 아야라(1980, 264)의 언급처럼, 소설 자체가 과학만능주의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을 이성의 법칙으로 판단하려는 것에 대항하여 신랄하게 풍자했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과 비교하여 소설 장르가 가진 유연성에 기인한 바 크다. 더불어 그는 어떤 사물 또는 대상이 지닌 역동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개념화나 체계화에 반대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이 장르 자체가 정형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세 편의 모범소설과 하나의 서문』이 대중 소설적인 형식을 띠고 등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인간의 진정한 존재적 의미는 외면적 조건이나 이성적 사유에서 비롯되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꿈꾸는 데서 기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내면에 자리 잡은 열망에서 찾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안개』와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거기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던 인간의 존재적 측면을 좀 더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나무노는 이 작품의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새롭게 선보일 이 모범소설이 당시 소설의 주 소비층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다음과 같이 내놓는다.

부인과 아가씨들은 마네키가 입은 승마복 앞에서 그 승마복이 최신 유행이라면 넋을 잃는다. 아니면 옷을 벗고 있거나 반쯤 벗은 사람 앞에서도 넋을 잃는다. 하지만 솔직하고 고상한 벌거벗음에는 불쾌해한다. 특히 영혼의 벌거벗음 앞에서는(Unamuno 1987, 17-18).

밖으로 드러난 인물들의 겉모습을 보는데 익숙한 독자들이 인물 내면의 적나라한 모습을 담아낸 자신의 소설 앞에 느낄 당혹감을 예상한 말이다. 하지만, 우나무노는 모범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소설 문학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함을 역설한다. 한 민족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에 있지 않고 심연의 바닷속 같은 ‘내부의 역사’에 내재하여 있다고 본 것처럼,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 역시 겉으로 드러난 데 있지 않고, 그 내면에 있기에 소설 역시 이를 담아내는 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민현(2005), 『스페인 현대 소설론: 리얼리즘에서 생성의 미학으로』, 월인.
- _____(2018), 「소설의 개혁과 인간 존재의 문제성: 우나무노, 『안개』, 『스페인 어권 명작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05-131.
- Abellán, José Luis(1996).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Calpe.
- Ayala, Francisco(1980), “Novela y filosofía”,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6*, Francisco Rico (Ed.), pp. 263-267.
- Cervantes, Miguel de(1984), *Novelas ejemplares I*, Madrid: Cátedra.
- Criado Miguel, Isabel(1986), *Las novelas de Miguel de Unamuno*,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 Estébanez Calderón, Demetrio(1987), “Introducción”, *Tres novelas ejemplares y un prólogo*, Madrid: Alianza, pp. 1-16.
- Fernández, Ana María(1991), *Teoría de la novela en Unamuno*, Ortega y Cortázar, Madrid: Pliegos.
- Garrido Ardila(Coord.)(2015), *El Unamuno eterno*, Madrid: Anthropos.
- Martínez, Alejandro(1991), *Género e intersubjetividad en la obra de Miguel de Unamuno*,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Sánchez Barbudo, Antonio(ed.)(1990), *Miguel de Unamuno*, Madrid: Taurus.
- Unamuno, Miguel de(1984a), *Niebla*, Madrid: Cátedra.
- _____(1984b), *El Cristo de Velázquez*, Madrid: Espasa Calpe.
- _____(1987), *Tres novelas ejemplares y un prólogo*, Madrid: Alianza.
- _____(1988), *Paç en la guerra*, Madrid: Alianza.
- _____(1992), *Amor y pedagogía*, Ana Caballé(Ed.), Madrid: Espasa Calpe.
- _____(1993), “Prólogo”, *La Tía Tula*, Ana Caballé(Ed.), Madrid: Espasa Calpe.
- _____(1994), *San Manuel Bueno, mártir, Cómo se hace una novela*, Madrid: Alianza.
- _____(1994),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Madrid: Espasa Calpe.
- _____(2015), *Andanzas y visiones españolas*, México D.F.: Almadía, S.C.
- _____(2019), “A lo que salga” file:///C:/Users/DCU/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Q7RQ0ZB3/A-lo-que-salga.pdf
- Zlotescu Cioranu, Ioana(1970), “Ejemplaridad de las tres novelas ejemplares

de Miguel de Unamuno”, *Actas del Tercer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Asociación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pp. 955-960.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minhyunc@c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17일

Unamuno' Theory of the Novel and the Existential Meaning of Human Being in *Three Exemplary Novels and a Prologue*

Min-Hyun Cho

Daegu Catholic University

Cho, Min-Hyun(2020), "Unamuno' Theory of the Novel and the Existential Meaning of Human Being in *Three Exemplary Novels and a Prologu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1), 1-21

Abstract In general, Unamuno's novels are usually understood as a medium to convey his though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his novels collectively because they evolv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his outlook on human beings and society, or by his reflections on the genre of novels. If *Love and Pedagogy*, published in 1902, became a milestone overcoming the 19th century realism of Unamuno's first novel, *Peace in War*, *Mist*, published in 1914, is a full-fledged work of reasons for the kind of novel he was pursuing. On the other hand, *Three Exemplary Novels and a Prologue*, which appeared in 1920, can be seen as a work which continues with his acclaimed work *Mist*, but also as an important effort to provide a wider consideration on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n the context of the novel. In *Mist*, Unamuno recalled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in front of the Creator by means of a meeting between the main character and the writer. Meanwhile, in these exemplary novels based on 'theory of the novel as life itself', he turn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willingness to become or not to become something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real person or a fictional character. In this way,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Three Exemplary Novels and a Prologue* in Unamuno's views on novel and examines how the existential meaning of human beings, one of the representative issues raised by him, appears in this work.

Key words Unamuno, *Exemplary Novels and a Prologue*, internal reality, existential meaning, example